

Vol.27 2010. 2

# K I E R

## Friday energy letter

녹색금융의 현황 및 향후 과제

# Friday Energy Letter

## 녹색금융의 현황 및 향후 과제

2010. 2. 19

\* 출처 : 금융VIP시리즈 2010-01, 한국금융연구원

### □ 녹색금융의 개념, 배경

- 해외에서 사용되는 환경금융 또는 지속가능금융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그 배경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적 환경개선 노력에 있음
- UN Global Compact: 2000년 7월 출범한 자발적 이니셔티브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인권, 노동, 환경, 반부패 등 4개 분야에 대해 10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, 선진국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점차 영향력 확대
- ISO 26000: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으로서 2010년 중 발간할 예정이며, 세계 각국 기업들에 사회적책임경영(CSR: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)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국제적 입찰, 주식 상장 등을 위한 조건으로 작용 가능

### □ 국내외 녹색금융 사례

- 해외 사회적책임투자 규모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, 현재 우리나라는 보증지원, 특정 녹색산업에 대한 대출상품 등 소수에 국한
- 사회적책임투자(SRI: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):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성과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방식
- \*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2월 11일 기준으로 SRI 시장규모는 약 1조8,218억원 수준 (출처: KoSIF)

#### <미국의 SRI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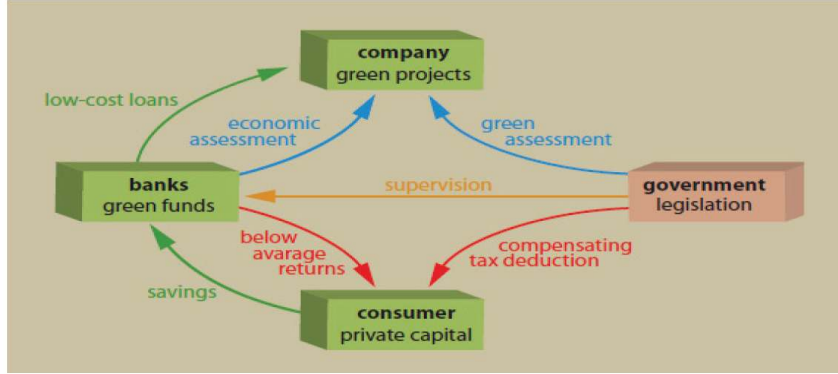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십억 달러)

	1995	1997	1999	2001	2003	2005	2007
사회적 스크리닝	162	529	1,497	2,010	2,143	1,685	2,098
주주경영참여	473	736	922	897	448	703	739
스크리닝 및 주주경영 참여	N/A	(84)	(265)	(592)	(441)	(117)	(151)
지역사회투자	4	4	5	8	14	20	26
합계	639	1,185	2,159	2,323	2,164	2,290	2,711

주 : 괄호 안은 이중계산(double counting)을 방지하기 위해 차감하는 수치  
 자료 : Social Investment Forum Foundation

- 네덜란드의 Green Funds Scheme: 정부, 은행, 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세제혜택을 통해 녹색 프로젝트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시스템

<Green Funds Scheme>



자료 : SenterNovem

- 국내 녹색금융 추진 사례: 신보와 기보는 녹색성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였고 보증비율 사항조정, 보증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부여

<국내 녹색금융 사례>

보증기관	상품명	특 징
신용보증기금	녹색성장산업	-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
	영위기업에 대한 보증	- 보증금액 한도 사정 시 우대 - 보증료 0.2%p 차감
기술보증기금	녹색성장산업	- A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및 그린에너지산업 영위기업 지원
	협약 보증	- 지원금액 : 10억원 이내 - 우대지원 : 보증비율 95% 적용, 보증료 0.2% 감면
	녹색성장산업	- B은행 특별출연을 통해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원
	협약 보증	- 지원금액 : 100억원 이내 - 우대지원 : 보증비율 100%, 보증료 0.3%p 감면

자료 : 은행연합회

□ 녹색금융 관련 정부정책

- '녹색성장 5개년 계획'은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, 녹색 금융 인프라 구축, 탄소시장 육성으로 구성
  -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: 산은, 기은,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, 모태펀드를 통한 녹색 중소/벤처기업 지원 확대, 민관 공동 참여 방식의 펀드 지원 확대 등
  - 녹색 금융 인프라 구축: 녹색 여신우대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, 녹색 수탁자 책임 등 녹색금융 관련 법·제도 정비, 녹색주가지수 개발, 녹색기업 Rating 등 기술적 인프라 구축, 녹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자격증 도입

- 탄소시장 육성: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, 시범사업 실시, 국제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, 공공기관 주도의 국내 건설 분야를 통합하는 CDM 사업 추진체 구성 등
- '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활성화 방안'은 녹색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및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
  -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녹색분야 인증제 도입 및 민간이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추가
  - 에너지 절감시설 등 녹색설비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ESCO 대상사업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융자 금리와 기간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며, 중소 ESCO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 및 세제지원을 확대

<발전단계별 자금유입 촉진 방안>

발전단계	주요 내용
R&D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녹색기술 R&amp;D 재정지원 규모 : 2.0조원('09)→2.8조원('13)</li> <li>· 투자연계형 R&amp;D 재정지원 규모 : 220억원('09)→ 900억원('13)</li> <li>· 구매조건부 R&amp;D 재정지원 규모 : 100억원('09)→ 550억원('13)</li> </ul>
상용화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모태펀드 출자 확대를 통한 녹색펀드 조성 규모 : 600억원('09)→ 1.1조원('03)</li> <li>· 『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』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 : (현행)30%→ (개선) 최대 50%</li> <li>· 녹색기업과 녹색프로젝트 신용보증 확대 : 2.8조원('09)→ 7조원('13)</li> <li>·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규모 : 1,300억원('09)→ 6,600억원('13)</li> </ul>
성장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녹색공모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</li> <li>· 녹색 장기예금 및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</li> <li>· 신보에서 유동화회사보증 채권 풀(pool) 구성시 녹색채권 편입비중 : (현행) 풀(pool)별 5~9%→ ('10년) 20% 이상</li> </ul>
성숙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녹색기업 수출금융 : 1조원('09)→ 3조원('13)</li> <li>· 녹색부품·소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특례 신용대출 : 200억원('09)→ 1,000억원('13)</li> </ul>

자료 : 기획재정부

□ 녹색금융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

- 녹색금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자금이 녹색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
- 정부는 시장매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, 금융사는 평판위험 관리, 홍보효과 등의 목적으로 CSR 차원의 녹색금융 추진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수익창출 목적의 녹색금융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
- 중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규정 및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이 필요


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
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